

마감 5분전

이치로와 이승엽



“나이가 들수록 육신은 점점 추해지고, 정신도 부패할 뿐이라네.” 셰익스피어의 ‘태풍’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우아하게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해주는 경구죠. 특히 몸으로 먹고사는 스포츠선수들은 ‘우아하게’ 늙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완숙’이 아니라 ‘은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이저리그 현역 최고령 타자인 스즈키 이치로는 ‘자연의 법칙’에 역행하는 선수입니다. 이치로의 나이는 마흔 셋입니다. 야구선수로는 ‘할아버지급’이죠. 그러나 그라운드에선 20대 못지않습니다. 2001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타격왕 2회, 최다안타왕 7회나 차지했고 메이저리그 통산 3030안타를 때려낸 그의 방망이는 여전히 활화산입니다. 올 성적도 타율 0.291(327타수 95안타)에 1홈런 10도루로 우등상을 탈 만합니다.

이치로가 또 한번 야구팬들의 고개를 절레절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애미와 연봉 22억원에 재계약하기로 해 내년에도 빅리그를 누빌 전망입니다. 연봉이 전성기 몸값의 20% 밖에 안 되는 ‘혈값’이지만 그는 돈보다 현역 선수의 길을 택했습니다. “50세까지 선수로 뛰고 싶다”는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닐 듯합니다. 식사는 물론 타격훈련 때 타구의 방향까지 계획해 실행할 정도로 엄격하게 자기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KBO리그에선 어떨까요? 역대 최고령 타자는 홀리오 프랑코입니다. 지금 롯데 자이언츠 타격코치를 맡고 있는 프랑코 맞습니다. KBO자료엔 1961년생으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 나이는 1958년생이라고 합니다. 프랑고는 42세에 출전해 최고령 안타와 홈런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역선수로는 불혹의 이승엽이 이치로의 기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승엽 또한 이치로 못지않게 자기관리가 철저한 선수죠. 4월 현재 타율 0.301에 홈런을 27개나 때려내며 조카뻘 되는 후배들과 경쟁해 각종 기록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고령=죄’가 되는 현실에서 ‘우아하게’ 나이를 먹어가며 선전하는 이치로와 이승엽은 많은 중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 다시 출발입니다.

연재호 편집국장 sol@donga.com

오늘 카타르전 관전포인트

손흥민 등 빠른 시간 득점이 필승전략
이용·김영권 빠진 수비라인 안정 필요

내용은 필요 없다. 결과가 보여줘야 한다. 축구국가대표팀이 카타르와 이란을 상대로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3·4차전을 잇달아 치른다. 먼저 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맞붙을 카타르부터 잡아야 한다. 중국과의 1차전(3-2 승), 시리아와의 2차전(0-0 무)에서 드러난 아쉬운 결과와 내용 때문에 여유는 없다. 대표팀 울리 슈틸리케 감독(62·독일)도 “홈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며 태극전사들을 독려하고 있다. 희망과 좌절의 갈림길이 될 카타르전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본다.

●중동의 ‘침대축구’

한국은 과거 카타르와 7차례 격돌해 4승2무1패를 기록했다.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선 모두 3번 만났다. 1990이탈리아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1989년 10월 싱가포르에서 맞붙어 0-0으로 비겼고, 2014브라질월드컵 때는 2번 모두 이겨 한 수 위임을 과시했다.

2022년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는 자존심을 버리고 철저히 ‘실리축구’를 추구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세렘반에서 한국과 득점 없이 비긴 시리아의 전략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시간을 끄는 지연술과 볼 전개를 끊는 차단술이 주무기다. 당연히 중동 특유의 ‘침대축구’가 예상된다. 이에 태극전사들은 “상대가 그라운드에 드러누울 틈이 없도록 몰아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이른 시간에 득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최근 대결한 2013년 3월 경기에서 한국은 종료 직전까지 1-1로 맞서다 손흥민(24·토트넘)의 결승골로 간신히 이겼다. 김신욱(28·전북)을 합류시켜 ‘높이’까지 보강한 공격력이 발휘돼 우리가 원하는 흐름으로 끌어갈 수 있다.

●수비안정

대표팀은 홈 1차전에서 중국을 3-2로 눌렀다. 침묵이 길어지면서 우려를 낳았던 지동원(25·아우쿠스부르크)이 3골 모두에 관여하며 부활을 알렸다. 그러나 경기 내용을 놓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첫 단추를 무난히 꿰었다는 안도감보다는,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조직력이 흐트러진 수비라인에 대해 “불안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월드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중간순위					
순위	국가	승-무-패	득	실	승점
1	우즈베키스탄	2-0-0	2	0	6
2	이란	1-1-0	2	0	4
3	한국	1-1-0	3	2	4
4	중국	0-1-1	2	3	1
5	시리아	0-1-1	0	1	1
6	카타르	0-0-2	0	3	0

※1·2차전 결과

▲한국=중국 3-2 승, 시리아 0-0 무

▲카타르=이란 0-2 패, 우즈베크 0-1 패

컵 아시아 2차 예선을 무실점으로 치른 팀답지 않았다.

불안감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 측면과 중앙에 예기치 못한 ‘빈틈’이 생겼다. 전문 오른 쪽 풀백으로 선발된 이용(30·울산)이 복부통증으로 빠지고, 중앙수비수 김영권(26·광저우 에버그란데)은 소속팀 경기 도중 다리 부상을 입어 10월 소집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다. 고광민(28·서울) 등 대체자원들이 있으나 소속팀에서의 경기력을 대표팀에서도 온전히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종예선이 주는 압박감도 불안요소다. 슈틸리케 감독도 “상대(카타르)의 역습이 강하다. 공격을 주도하면서도 수비균형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한국 경기 일정			
날짜	상대(결과)	홈/원정	9월 FIFA 평점 및 2차 예선 성적
2016.9.1	중국(3-2 승)	홈	78위
9.6	시리아(0-0 무)	원정	114위
10.6	카타르	홈	85위
10.11	이란	원정	37위
11.15	우즈베키스탄	홈	49위
2017.3.23	중국	원정	C조 2위(5승2무1패)
3.28	시리아	홈	E조 2위(6승2패)
6.13	카타르	원정	C조 1위(7승1패)
8.31	이란	홈	D조 1위(6승2무)
9.5	우즈베키스탄	원정	H조 1위(7승1패)

※조 1·2위는 러시아월드컵 본선 직행, 조 3위는 PO 진출

※한국은 9월 FIFA 평점 47위, 2차 예선 G조 1위(8승무패)

에 계속 신경 써야 한다”며 유비무환의 태세를 강조했다.

카타르를 넘어야 이란 원정경기(11일·테헤란)의 부담도 줄어든다. 6일 밤 수원을 승리의 함성으로 물들이기 위해선 수비안정이 전제돼야 한다. 안방에서 2번째로 치르는 최종예선 경기에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대표팀 수비라인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2016 대교눈높이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대진이 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추첨을 통해 확정됐다. 우승을 목표로 참가한 총 64팀의 대표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서다영 기자

64강 단판 토너먼트! 초등축구 최강자 가리자

대교눈높이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서울신정초 등 참가…15일부터 열띤 경쟁

초등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2016 대교눈높이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대진이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KFA)는 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총 64개 참가팀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진 추첨을 진행했다. 초등학교의 내로라하는 강호들의 대진 일정이

눈길을 끈 가운데, 예측불허의 지역더비부터 K리그 클럽 산하 유소년팀간의 대결까지 이색적 만남이 속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초등리그 왕중왕전은 64강 단판 토너먼트로 치러지며,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북 전주시의 6개 구장에서 펼쳐진다.

정장한 우승 후보들의 대진이 확정될 때마다 장내가 술렁였다. 다펜딩 챔피언이자, 이 대회 최다 4회 우승팀인 서울신정초는 64강전에서 부산권역 3위로 왕중왕전에 오른 부산연

산초를 만난다. 2016전국소년체육대회 정상을 차지해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경남남해초는 경기성남FCU12와 맞붙는다. 만약 두 팀이 연승을 이어갈 경우 16강전에서 맞붙는다. 이승우(18·FC마르셀로나 후배네A)를 배출한 전통의 강호 서울대동초는 대구김세인FCU-12와 첫 대결을 한다.

K리그 각 클럽 산하 유소년팀간 맞대결도 눈길을 끈다. 울산현대U12와 경북포철동초(포항스틸러스U12)는 64강전에서 만나 ‘동

해안 더비’를 치르게 됐다. 경북포철동초는 2년 전 이 대회 우승팀으로 2016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서도 5연패를 달성한 유력 우승 후보다. 또 대전시티즌유소년클럽과 경기수원삼성U12, 부산아이파크U12와 경기부천FC1995U12등의 맞대결도 성사됐다. 전북권역에서 유일하게 왕중왕전에 진출한 2팀인 전북현대유소년클럽U-12와 전북이리동초는 64강전에서 지역더비를 벌인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이기흥 통합 대한체육회 신임 회장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
체육인 일자리창출 최선”

▶1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소견 발표 때는 “통합 과정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제도와 규정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문제부와 험거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이후 첫 회장을 선출하는 행사로 체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대한체육회의 올해 예산은 4100억원이 넘는다. 대한체육회장은 양 단체 통합에 따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모두 아우르는 수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욱이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도쿄하계올림픽까지 치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고 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투표인단 67%의 뭇도 포용해야 한다.

이 당선인은 “무엇보다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과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포츠마케팅 등을 통해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스포츠 토로 수익금 배분 등을 통해 5000개 일자리를 만들 어내겠다. 태릉선수촌과 진천선수촌의 유휴시설을 이용해 지도자를 육성하고, 이들을 전국의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 지도자로 활용하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육성도 가능하다. 체육인들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체육 100년사를 발간하고, 비인기종목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현장 리포트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진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그동안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친 5명 후보자와 지지자들은 일제감치 올림픽홀 정문에 도열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거인단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어깨띠와 연호는 없었지만, 올 3월 구 대한체육회와 구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이후 사실상 첫 통합 체육회 수장을 뽑은 이번 선거는 정당의 정당대회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과거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소수 대표자의 투표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인단이 참가했다. 2013년 2월 선거 때는 54명의 대의원 투표로 회장을 선출했지만, 이번에는 대한체육회 대의원 62명, 회원총독단체

710명, 시·도체육회 278명, 시·군·구체육회 355명 등 선거인단이 총 1405명에 이르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된 선거운동과 투·개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후보자 5명의 열띤 경쟁만큼이나 이번 선거의 진행과정에선 각종 ‘설’이 난무했다. 후보 등록 이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았다. 선거운동 중반부에는 그 ‘특정 후보’가 A에서 B로 바뀌었다는 얘기가까지 흘러나왔다. 이날 후보자들의 공식 소견 발표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또 후보는 내년 대통령선거의 ‘잠룡’으로 꼽히는 유력 정치인의 사람이라는 내용까지 돌았다. ‘체육인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체육대통령’ 선거의 후유증이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근거다.

후보자 5명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듯 대한

체육회는 자율·독립성 확보, 재정 확충,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올 3월 양 단체의 물리적 통합 이후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화학적 통합도 마무리해야 한다. 강영종 전 대한체육회 공동회장은 “통합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맞는 말이다. 이번 제40대 대한체육회장으로 선출된 이기흥 신임 회장의 어깨는 유난히 더 무겁다.

1920년 7월 출범한 조선체육회를 모태로 하는 대한체육회는 올해로 창립 96주년을 맞았다. 이제 한국체육은 지나온 100년을 되돌아보며 다가올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 새로 당선된 이기흥 회장이 그동안 반목과 불신이 만연했던 대한체육회를 하나로 만들고, 우리나라가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올림픽공원 | 김도형 기자 dohoney@donga.com

U-17 카타르 3개국 친선대회서 카타르 제압

김태엽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U-17) 대표팀이 4일(한국시간) U-17 카타르 3개국 친선대회에서 김현우(울산현대고)의 페널티킥 결승골(후반 3분)로 개최국 카타르를 1-0으로 꺾었다. 대표팀은 말리와 2번째 경기를 치른 뒤 귀국한다.

대구FC, 5일 박곡초교서 ‘체육교실’ 열어

대구FC가 5일 경북 고령에 위치한 박곡초등학교를 방문해 ‘스포츠타 체육교실’을 열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구FC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선정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 학교를 선수들이 방문해 축구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구FC 김대원, 박수환, 서재민, 정치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수업을 했다.

편집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